

신한금융 ‘리딩뱅크 탈환’ 이끈 조용병, 3연임에 ‘무게’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진옥동·임영진 3명 압축
조 회장 사업 다각화 등 성공 평가
사법 리스크도 해소돼 연임 ‘유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도전이 막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조용
병 회장의 경영 성과와 조직 신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
용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
근 차기 회장 슌리스트로 ▲조용병 신
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
영진 신한카드 사장을 확정했다. 지난
달 11일 회추위 가동 이후 18일 만에 후
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당초 외부 인사 1명을 포함해 5명이
슌리스트에 포함됐으나 2명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후추위 과정에서 3명으
로 추려졌다.

차기 회장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에서 결정한다. 사외이사 전원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가 진행되는 이날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평판조회 결과 리부와 개인별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
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
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

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이어 내년 3
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다.

금융권에선 2017년 3월부터 신한금
용을 이끌어온 조 회장의 3연임이 유력
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은 취임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냈다.

취임 당시인 2017년 7월에는 기존 은
행, 증권 중심의 CIB(기업금융 기반 투
자은행) 부문을 생명, 캐피탈까지 포괄
하는 GIB(group&global investmen
t banking)로 확대 개편했다. 같은해
신한리츠운용을 설립했다. 2019년 2월
에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보험
부문 강화도 성공했다.

지난 2020년에는 네오플렉스를 인수
하고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
용을 합병했다. 2021년에는 신한라이프
를 출범하고, 올해 6월에는 EZ손해보
험을 출범해 비은행부문의 포트폴리오
를 완성했다.

신한금융지주의 비은행계열사 순이
익 비중은 약 47%로 은행 의존도가 확
연히 줄어들어 사업다각화에 성공했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한금융 실적은 지난해에는 4조193
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업계 최초
로 순이익 4조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
웠다.

올해는 이미 3분기 만에 4조3154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기
록을 또 다시 갈아 치웠다. 경쟁 상대인
KB금융그룹과 순이익 경쟁에서 압도
적 우위를 점하며 리딩금융 타이틀도
가져왔다.

또한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
해방됐다.

지난 6월 조 회장은 2018년부터 시작
된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 재판 상고심
에서 항소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 받았
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상
고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4년에 걸친 법
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19년 연임 당시 재판 중임에
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무한 신뢰를 받
은 조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상
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의 연
임이 유력하다”며 “또 하나의 관점은 진
옥동 은행장의 부회장 영전 가능성으로
외풍을 막을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산은 부산행 강행에 노조, 강석훈 회장 비판

노조 “국회법 무시한 처사
소통없이 독단적으로 추진”
직원 퇴사·이직도 가속화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부산이전을
위해 조직 신설 등에 대한 안전을 상정
할 예정이다. 노조는 국회법을 무시한
강석훈 회장에게 거센 비판을 제기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이행
을 위해 내년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
권 지역의 영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
충하는 한편 지역 배정인원으로 100여
명을 차출한다는 내부문서를 노조가 최
근 공개했다.

동남권 복합금융(CIB) 및 해양산업
금융 영업력 강화를 명분으로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다. 문서에는 ▲중소중견
금융부문 확대개편 ▲동남권지역본부
영업점 정비 ▲해양산업금융본부 영업
조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현행 ‘1부문
2본부 1부·실 7지점’ 체제가 ‘1부문 2본
부 4부·실 4지점’ 형태로 개편되고 기존
부울경 지역 근무 인원의 절반에 달하
는 100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 1명이 일신상
의 이유로 갑자기 사임한 점이 노조들
의 분노를 사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서 1~2개를 신설하거
나 이동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산
은 회장 결재 후 추진한다. 강 회장이 이
사회에 의결을 올린 것은 책임 회피로
결국 임기가 7개월 남은 이사가 사임하
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 받은 것이다.

부산이전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조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추진
한다는 지적이다.

산은 부산이전은 지난 국감에서도 법
과 절차를 엄수하며 진행돼야 할 정책
이라고 수차례 지적됐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내 둔다’는 산
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
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
처리를 미루며 연내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에서 강 회장이 부산이전을 강행한다면
노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운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통
상 정기인사가 매년 1월에 있는데 무리
하게 인사를 12월로 당기는 것은 연내
에 지방이전 성과를 대통령실과 금융위
에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난 11월
까지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은을
떠난 직원은 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매년 30여명 정도가
이직을 위해 퇴사하면서 타 공공기관
대비 이직률이 높은 편이지만 올해는
통상적인 수치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
다.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자발적 퇴직
자만 1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승용 기자

토스뱅크, 창사 첫 흑자 전환 ‘성공’

여신부문 성장 등 견인

토스뱅크가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
에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3분기 경영공시를 공개
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수
익성 향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3분기 말 고객 수는 476만명이다. 여
신잔액은 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지
난 2분기 4조3000억원 대비 66% 가량
상승했다. 예대율은 29.57%로 2분기
15.62%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수익성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3분기 당기순손실은 476억원
으로 2분기 589억원 대비 113억원의 적
자폭이 축소됐다. 여신부문 성장으로 2
분기 대비 233억원 늘어난 결과다.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3분기 0.54%로 2
분기 0.12% 대비 4.5배 상승했다.

지속적인 증자와 수익성 향상으로 자
본 안정성을 강화했다. 3분기 국제결제
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 11.35%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토스뱅크의 모습. /뉴시스

2분기 10.52% 대비 0.83% 상승했다.
의무조건인 8%대를 상회하며 관리 중
이다. 1000억원 증자에 성공해 현재 자
본금은 총 1조4500억원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
외환경에도 불구하고 500만 고객과 주
주들의 성원으로 출범 1년여 만에 유의
미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 고객 중심의 혁신과 중저신용자 포
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모두를 위한
제1금융권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금융당국 지속·장기적인 지원책 필요”

>> 1면 ‘신용스프레드’서 계속

이어 그는 “유럽과 중국의 신용스프
레드 역시 우려와 달리 안정세를 유지
하고 있다”며 “여타 주요국과 달리 국내
의 경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과
신용 스프레드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는 경기침체와 신용위험 동
반 리스크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의 신용위험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인 것은 다행으로 보인다. 단, 국
내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당
국의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
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
부가 최근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2차 캐피탈콜 실시,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시간 단축
등은 연말을 앞두고 금융기관과 기업들

의 자금 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
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대한 조치로 풀
이되지만, 단기자금시장은 어려움이잔
존해 있다”며 “정책 지원으로 당장 최악
의 시나리오는 피해 갈 수 있으나 단기
자금시장에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기까
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가 4분기에 향후 경기 전망을 하향조정
하거나 총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할
경우 기업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
다”고 꼬집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IBK기업銀 “급여고객에 각종 혜택 쏜다”

‘IBK급여라운지’ 서비스 오픈

IBK기업은행은 i-ONE Bank(개
인) 내 급여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
하는 ‘IBK급여라운지’ 서비스를 오픈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IBK급여라운지’는 매월 IBK계좌
로 5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객에게
스탬프를 제공하고 고객은 적립된 스탬
프를 사용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비대면 혜택관이다. 또한 급여실
적 현황, 제휴 할인쿠폰, 재테크 정보,
맞춤 상품 추천 등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로 ‘IBK급
여라운지’ 첫 입장고객에게 웰컴키프트
(GS25 2000원권) 및 스탬프 1개를 제공
하며 친구초대 시 추가 스탬프를 적립
해준다. 이외에도 적립된 스탬프를 사
용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BHC 치킨
모바일 쿠폰 등 매월 제공되는 이벤트
에 응모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계좌로 급
여를 받는 누구나 ‘IBK급여라운지’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이승용 기자